

개념과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한 도시 내부 구조 모델의 이론적 재고찰

신정엽*

Theoretical Reconsideration of Urban Internal Structure Model Based on the Concepts and Processes

Jungyeop Shin*

요약 : 20세기 동안 급속한 도시화와 대도시 분화와 함께 도시 내부 구조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어왔다. Burgess, Hoyt 등으로 대표되는 고전 도시 구조 모델은 효과적으로 도시 내부 공간 구조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부 연구는 형태학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본질적인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올바른 도시 공간 구조 이해를 위한 틀로서, 개념과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 고찰 프레임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도시 내부 구조에 대한 개념과 프로세스는 도시 공간 형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Burgess, Hoyt의 고전 모델을 재고찰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도시 내부 구조, 개념, 프로세스, 동심원 모델, 섹터 모델

Abstract :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the research on the urban internal structure has been active with the phenomena of the rapid urbanization and metropolitan subdivision. The classical models for the urban internal structure such as Burgess' Concentric zone model, Hoyt's Sector model provided the explanation framework for urban internal structure efficiently. However, some research mainly focused on the morphological aspect of urban spatial structure, which made the essential understanding of urban spatial structure impossible. For this reas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ress the importance of the theoretical review framework based on the concepts and processes, in order to understand urban spatial structures correctly. The concepts and processes for urban internal structur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spatial form, and through this framework, Burgess and Hoyt models were reviewed.

Key Words : Urban internal structure, Concepts, Processes, Concentric zone model, Sector model

I. 서론

20세기 중반 이후 도시지리학 분야에서 도시 내부 구조(urban internal structure)는 도시 체계(urban systems)와 더불어 주요한 연구 분야로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도시화(urbanization)와 도시 성장(urban growth)에 따

른 대도시 등장과 함께 도시 내부 구조의 중요성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도시 내부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 모델(concentric zone model)(1925), 호이트(Hoyt)의 섹터 모델(sector model)(1939) 등의 고전 이론이 제시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도시 지리학 분야에서 이들 주요 개념과 원리가 다양하게 계승,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geoshin@snu.ac.kr)

발전되어 왔다. 또한 국내에서도 이러한 고전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대한 소개되어 왔다.

그런데 고전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대해 핵심 개념과 이론적 프로세스의 심층적 이해를 간과한 채, 공간 형태 측면 등에만 초점을 두으로써 도시 내부 구조에 대한 이해를 제한하고, 왜곡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전 도시 내부 구조의 핵심 개념과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현대 도시 내부 구조 현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서 도시 내부 구조 모델에 대한 방법론 측면에서 이론적 재고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도시 내부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주요 요소를, 특히 개념과 프로세스 등을 중심으로 이론적으로 재고찰하고자 하며, 이를 기반으로 고전 도시 구조 모델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현대 도시 내부 구조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론적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도시 내부 공간 구조를 설명하는 주요 요소인 개념과 원리, 형성 프로세스, 공간 조직, 공간 형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도시 내부 공간 구조의 개념적 구성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하며, 이러한 개념적 구성을 고전 도시 공간 구조 모델인 베제스의 동심원 모델, 호이트의 섹터 모델에 적용하여 그 의미를 평가하고자 한다.

II. 도시 내부 공간 구조의 개념적 구성

1. 도시 공간 구조의 주요 개념의 재고찰

일반적으로 도시화와 도시 성장에 따라 도시 기능과 이들 기능 요소간의 관계가 변화되며, 이에 따라 도시 내부 공간 구조도 변화한다. 도시 내부 구조는 크게 CBD를 중심으로 한 중심 도시(central city)와 이를 둘러싼 교외 지역(suburban region)으로 구성된다(Hartshorn, 1991; Pacione, 2005)¹⁾. 이때 CBD와 교외 지역, 교외 지역 간에는 다양한 상호작용적 프로세스가 수행되며, 특히 대도시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교외화(suburbanization) 과정에서 교외 지역에서의 기능적 분화가 활발히 나타난다. 또한 도시 스프롤(urban sprawl) 과정과 더불어 도시 경계를 넘어 도시적 성격이 나타나는 준교외 지역(exurban region)의 형성도 나타난다(신정엽 등 역, 2011; Theobald, 2001).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는 전형적으로 단핵 도시 구조(monocentric urban structure)에서 다핵 도시 구조(polynucleated urban structure), 그리고 분산형 도시 구조(dispersed urban structure)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Anas *et al.*, 1998). 이러한 도시 공간 구조의 개념들은 도시 공간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도시 내부 구조에 대한 개념들은 단핵, 다핵, 분산형 도시구조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도시 구조의 외적, 내적 측면을 중심으로 구성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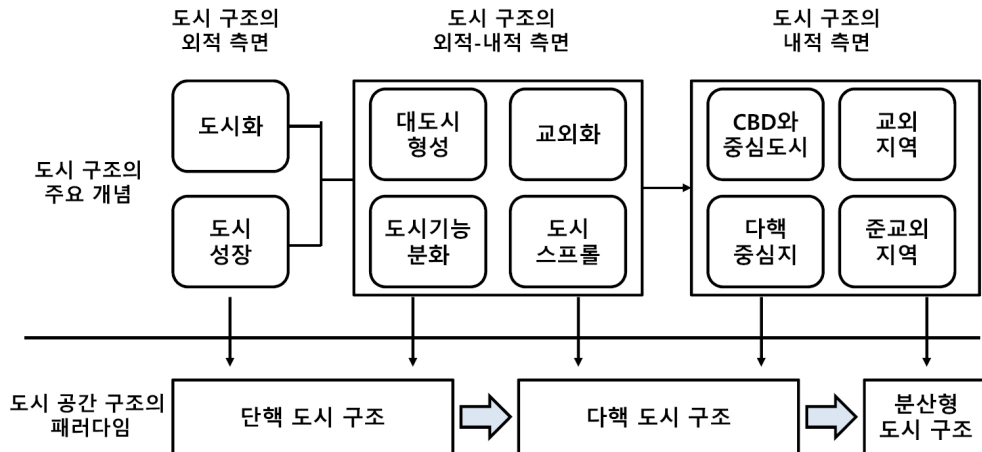


그림 1. 도시 내부 구조의 주요 개념적 구성

수 있다. 우선 도시 구조의 외적 측면에서는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 도시화(urbanization), 도시 성장(urban growth)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도시화와 도시 성장에 따라 도시의 내적 측면에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들 변화는 대도시 형성, 교외화, 도시 기능 분화, 도시 스프롤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의 공간적 범위뿐만 아니라 도시의 인구 성장 및 기능의 발달에 따른 대도시(metropolis)가 형성된다. 또한 도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도시의 양적인 기능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기능의 분화가 나타나며 다양한 도시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 한편, 기존의 CBD를 포함한 중심 도시(central city)의 제한된 범위를 넘어 외부로 도시 영역이 확대되며 주거 및 경제 기능들이 외부로 분산되는 교외화가 나타난다. 이는 비계획적, 비정형적, 비지적 성격을 지니는 도시 스프롤의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도시 내부 공간 구조는 일반적으로 CBD와 중심 도시에 도시 기능이 집중되는 경향을 가지지만 도시 성장에 따라 교외 지역이 발달하게 된다. 또한 단핵 도시에서 다핵 도시 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교외 지역에 다핵 중심지들이 형성, 발달하게 되며, 준교외 지역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림 2는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에 수록된 도시 내부 구조에 대한 모식도들이다. 도시 내부구조는 도시 기능이 분화됨에 따라 다양한 공간 구성을 가지며 이러한 기능들의 입지와 분포를 일반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식도들의 공통점을 살펴볼 때 여러 가지 논의 사항들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CBD와 도심에 대한 구분이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CBD에서 외부로 갈수록 동심

원 지역들로 구성되는데, 이들 지역들은 중간 지대(또는 중간 지역), 주변 지대(또는 주변 지역, 외곽 지대)로 구성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개념에 대한 모호성이 존재하는데, ‘주변 지역’이라는 용어는 절대적 위치를 지칭하기보다는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경향을 가지며, 공간 스케일에 따라 모호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주변 지역은 도심에서의 주변일 수도 있지만, 다핵 중심지의 주변일 수도 있으며, 장소, 국지적 지역, 국가 등의 다양한 공간 스케일에서도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중간 지역이라는 것도 점이 지역(transition zone)의 측면에서 그 지역 특성과 경계가 모호함을 내포할 수 있다.

둘째, 세 모식도의 사례 모두 주변 지역 밖에 개발제한 구역(greenbelt)을 설정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일부 대도시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모든 도시에 대한 일반화된 모식도로 개발제한 구역의 설정은 부적절하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도시 구조의 일반화된 개념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계획 상에서 도시 성장 관리의 특정 정책 수단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다양한 관리 정책 수단들의 하나이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셋째, 도시 내부 구조에서 표현한 주요 사상들의 입지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것이다. 세 모식도 전부 시장과 공장(소공장)이 중간 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창고의 경우도 중간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학교는 주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기능적 사상들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위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리가 있다. 또한 중간 지대를 저급 주택, 주변 지대에는 고급 주택을 위치시키는 것은 상당한 일반화의 무리가 따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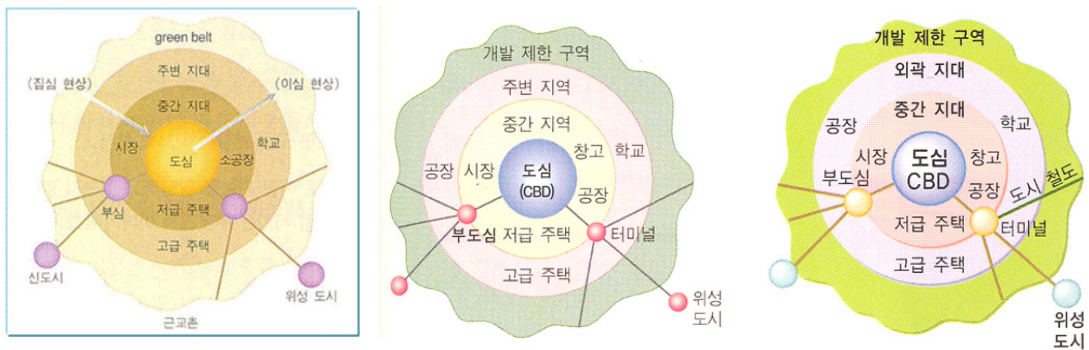


그림 2.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도시 내부 구조에 대한 모식도

출처 : 조성호 등, 2008:148; 박병익 등, 2012:127; 이우평 등, 2012:133.

다. 그리고, 모식도에서는 지대의 차이에 따라 주택 가격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CBD와의 거리에 따라 거리에 따라 상반된 일반화된 결과가 가능하다. 특히, 입찰 지대 이론의 경우 도심에 가까울수록 지대가 높게 나타나며 주거 지역도 그러한 경향을 가지는 반면, 중산층의 교외화가 나타나는 경우 CBD에서 멀어질 수록 주택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전자의 경우 제3세계 대도시에서, 후자의 경우 선진국의 대도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연구 결과를 보면 일반화에 부적절할 수 있다(Pacione, 2009).

넷째, 도시 내부 구조 밖에 신도시, 위성도시의 개념을 사용하여 연결하여 표현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중반 이후 ‘위성도시’ 개념은 자주 사용되지 않은 경향을 보이며, 위성도시 개념은 도시의 의존 측면에서 적용되므로, ‘신도시’의 개념과 더불어 실제 현상에 적용할 때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더 추상화된 측면에서 다른 인근 도시들간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수정하여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근교촌’의 경우 모호성을 가지는 개념으로 구체적인 정의와 기능적 특성을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 도시 내부 구조와 관련한

모식도에 대해서는 더욱 유의하여 실제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개념과 정의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 그림 3은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에 수록된 대도시권의 공간 구조에 대한 모식도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세부적인 하위 지역 구분이나 명칭에는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모두 공통적인 대도시권의 공간 구조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4개의 사례를 비교하면 입체적이거나 2차원적인 시각적 표현 외에도 공간 구조의 세분화 정도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도시의 맨 가운데에는 중심도시 용어가 3개가 표시되어 있으나, 내부의 세부 지역은 2개만 표시되어 있다. 둘째, 교외 지역은 3개 모식도가 언급되어 있으나, 그 범위는 각각 다르게 명시되어 있다. 셋째, 교외 지역 외부에는 배후 농촌 지역이 존재하거나 그 사이에 대도시 영향권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지역 용어(예, 내측 주변 지역, 외측 주변 지역, 도시 음영 지역)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각기 다른 공간 범위를 사용하거나 다른 개념을 사용하는 등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러한 모식도들은 원본과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Bryant *et al.*(1982)에 의해 저술된 「The Cit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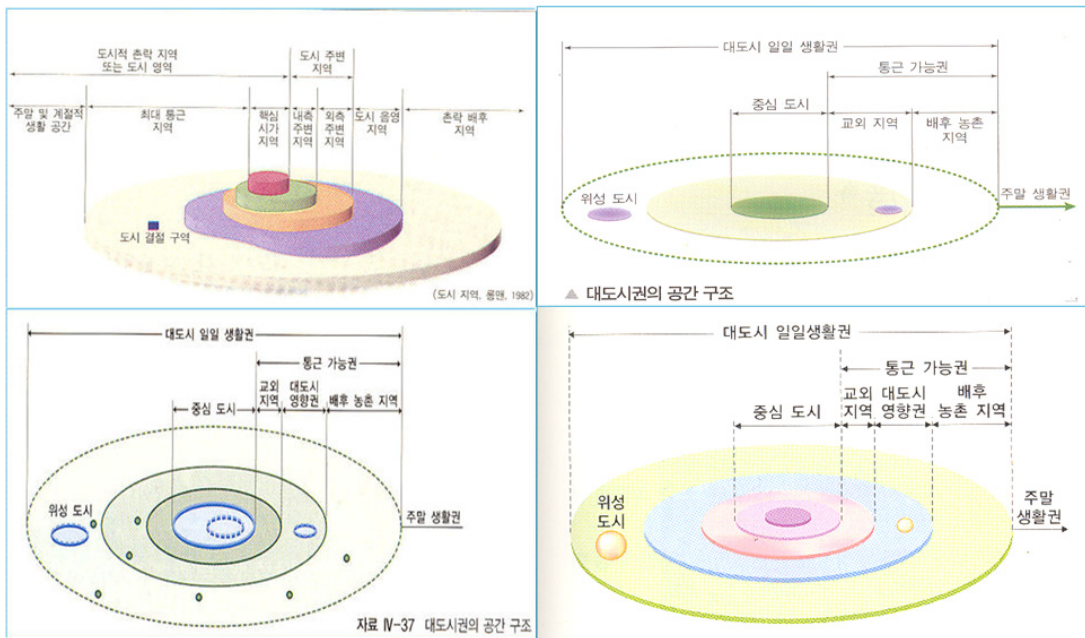


그림 3.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대도시권에 대한 모식도

출처 : 이순호 등, 2003:167; 박병익 등, 2012:134; 이순용 등, 2003:167; 이우평 등, 2012: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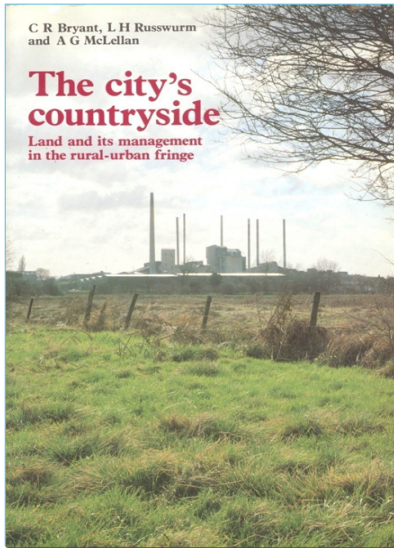


그림 4. The City's Countryside의 앞 표지

출처 : Bryant *et al.*, 1982.

Countryside」에서 이 모식도의 원형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는 우선적으로 대도시권의 모식도와는 다른 접근을 보이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첫째, 책의 부제에서처럼 ("Land and its management in the rural-urban fringe"), 이 저서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토지이용과 그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도농 통합 지역으로서 도시와 농촌간의 공간적 상호작용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이를 위해 'regional city'라는 개념을 조작적 정의하고자 하였다. 이

에 의하면, 1945년 이후 탈산업화된 미국의 정주 체계는 'regional city' 형태를 띠고 있으며, 집중된 도시화 지역과 그 주변의 분산된 지역을 띠고 있다.

Bryant *et al.*(1982)은 'regional city'를 큰 지역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도시와 농촌이 결합된 정주체계에 대한 정의를 백만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80~100km 반경의 도시 생활 공간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regional city'의 특징으로 4가지 특성을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주변에 분산된 농지, 산지 등으로 둘러싸인 집약적 토지이용과 인간 활동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인간과 재화의 이동인데, 주로 도시화된 도심으로 이동의 주 흐름과 복잡한 흐름의 이동을 강조하였다. 네 번째 특성은 다양한 생활 기능으로 특화된 중첩된 생활 공간들이 이들 복잡한 이동 패턴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Bryant *et al.*, 1982). 즉, 'regional city' 개념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도시의 공간을 하나의 생태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이 시스템 관점에서 도시와 농촌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생활 정주 체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regional city'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주요 특성을 기술한 후, 이 개념의 시각적 이해를 돕기 위해 모식도를 작성하였다.

그림 5에서처럼, 우선 대도시권의 맨 안쪽에는 중심 도시(concentrated city) 또는 핵심 시가지화 지역(core built-up area)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 권역에는 내부 경계(inner fringe)와 외부 도시 경계(outer fringe) 지역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지역은 도시 경계(urban fringe) 또는 농촌-도시 경계(rural-urban fringe)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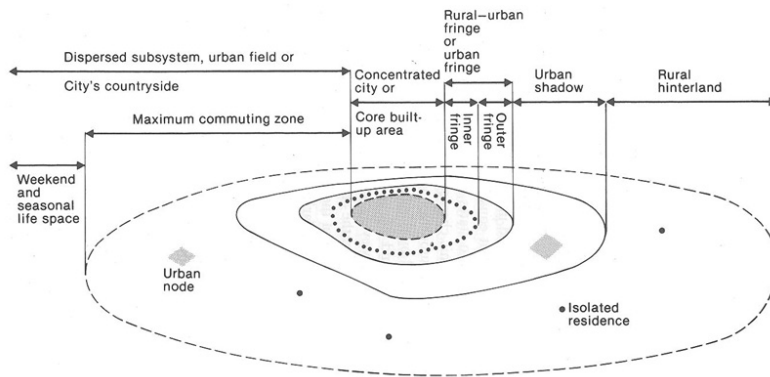


그림 5. Bryant *et al.*에 의한 'regional city'의 공간 모식도

출처 : Bryant *et al.*, 1982.

그 다음 권역은 도시 영향권 지역(urban shadow)에 해당되며, 그 외부는 농촌 배후 지역(rural hinterland)이라고 명명하였다. 특이한 점은, 이러한 세분화된 공간 범위 구획과 더불어, 중심 도시 이외의 지역을 ‘도시의 전원 지역(city's countryside)’라 명명하면서, 이를 분산된 하위 시스템 또는 도시 필드(urban field)로 조작적 정의를 하여 공간 범위를 무제한으로 확장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대도시의 분화에 따른 도시의 내부 구조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CBD를 중심으로 중심 도시(central city)가 존재하며, 이 지역의 외부에 도시 경계 범위 내에 존재하는 교외 지역(suburban region)이 존재하고 있다(그림 6). 특히, 교외 지역은 도시 지역 내에 존재하는 중심 도시의 외부에 위치한 지역을 의미하며, 도시 영역 내에 존재한다(Pacione, 2009). 이는 교외 지역에 다핵의 도시 중심지들이 존재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단핵 도시 구조와 다핵 도시 구조 모두에서 동일한 공간적 범위 설정과 개념적 용어가 존재한다. 특히, 도시의 범위(urban boundary) 내의 인근 지역에 도시 경계(urban fringe)가 존재하며, 도시의 공간 범위를 넘어서면 농촌 지역이 나타난다. 이는 Bryant *et al.*(1982:11)에서도, 도시 경계에 의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이 구분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Bryant *et al.*(1982)의 regional city는 일반적인 대도시의 내부 공간 구조의 모식도와는 거리가 있으며, 특히, 대도시의 세분화된 공간 분할과 세분 공간에 대한 용어의 조작적 정의도 현재 도시 지리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대도시의 공간 구조와 동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Bryant *et al.*(1982)도 고백하였듯이, Mumford(1961) 등의 반대 의견들도 존재하고 있다(Bryant *et al.*, 1982:8). 더우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대도시의 내부 공간 구조 논의에 있어서 이 모식도는 거의 인용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실제 세계의 대도시 공간 구조를 설명하는데 부적절하고 비현실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특정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 틀의 설정에 있어서 해당 논의의 목적, 과정, 근간이 되는 공간 조직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형태 측면에만 초점을 두어 차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2. 개념과 프로세스를 고려한 도시 공간 구조의 설명 틀의 재고찰

1) 도시 공간 구조의 효과적 설명을 위한 고려 측면

실제 세계의 도시 내부 공간 구조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유용하다. 첫 번째는 이론적 개념 틀과 현실 세계의 연결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론적 측면에서의 도시 공간 구조는 매우 많고 다양한 현실 세계의 복잡한 현상들의 일반화, 추상화를 통해 구축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특수 또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의 개별 도시 공간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다. 또한 오래전에 제안된 고전 도시 공간 구조 모델의 경우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여건에 따른 연구 대상에 대한 설명을 위해 모델화된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시대와 지역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설명이 적용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화, 추상화 과정은 동시에 다른 특수한 상황이나 지역에서의 도시 공간에 대해 일반화, 추상화된 모델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이론과 모델이 가지는 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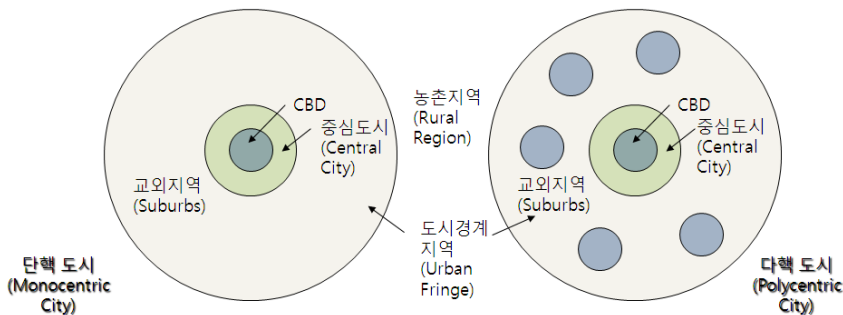


그림 6. 도심과 교외 지역에 대한 모식도

출처 : Hartshorne, 1992:228.

화, 일반화 수준을 구체적, 특수적 수준으로 연결하거나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대와 지역마다 차이가 나지만, 대도시로의 도시 발전에 따라 도시 영역이 확장되면서 교외화가 발생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의 다양한 계층들의 주거지 분리가 나타나면서 주거 기능의 분화가 발생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일반적, 추상적 원리와 개념은 특정 시점, 환경에서 그 국지적 맥락을 고려하여 적용하면 매우 효과적으로 설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시간과 공간 측면을 고려한 동적인 변화에 대한 것이다. 도시 내부 구조는 시간 측면에서 정적인 형태를 가지는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를 수반한다. 예를 들어, 한 도시는 인구가 증가하거나 도시 영역이 확대되면서 내부 구조가 정지되어 있기 보다는 끊임없이 변화된다. 동시에 도시 내부 구조는 공간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공간 스케일에 따라 변화를 수반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공간적인 흐름에 따라 도시 내부구조가 동적인 변화를 겪게 되며, 이러한 변화는 도시 공간 구조 모델에서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모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실제 세계의 도시 현상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도시 내부구조의 지리적 의미와 해석에 대한 것이다. 도시 내부구조는 그 자체로 기하학적이고 형태 측면에서 지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형태는 도시의 기능이나 공간 조직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도시의 내부 구조에 대한 개념과 원리에 의거하여 실제 세계의 도시 공간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지리적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왜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지가 분리되었는가? 경제적 측면에 따른 주거지 분리와 이에 따른 지역별 변화는 어떤 과정을

수반하는가? 도심과 교외 지역간의 차이를 지리적인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도시 내부 구조의 개념과 원리, 모델은 지리적 의미와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특히, 중산층의 교외화, 대도시내 거주지 분리에 대한 원리와 프로세스는 시대와 국가를 초월하여 발생하게 되며, 현재 우리나라 대도시의 공간 구조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2) 개념과 프로세스를 고려한 설명 틀의 재구성

실제 도시 내부의 공간 구조는 단순히 공간의 형태적 측면(morphological aspect)만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내부 구조의 개념과 원리를 근간으로 해야 하며, 또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도시 공간 구조 형성 프로세스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 공간 구조의 형태가 어떠한 내부 공간 조직을 반영하고 있는지 제시해야 한다. 그림 7은 도시 내부 구조의 실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4가지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도시 공간 구조의 형태는 현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도시 내부 구조의 전체적인 형태는 원형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장방형 또는 비정형의 불규칙한 모습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공간 형태는 동일하게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형성 프로세스는 매우 다를 수 있다. 특히, 시간 흐름에 따라 특정 도시 내부의 공간 형태가 형성되는 모습은 프로세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체적인 형태가 동심원의 모습을 가지는 경우에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도시의 중심에서 형성되어 주변으로 확대되는 프로세스를 수반할 수 있기도 하며(예, 교외화), 반대로 주변에서 안으로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가질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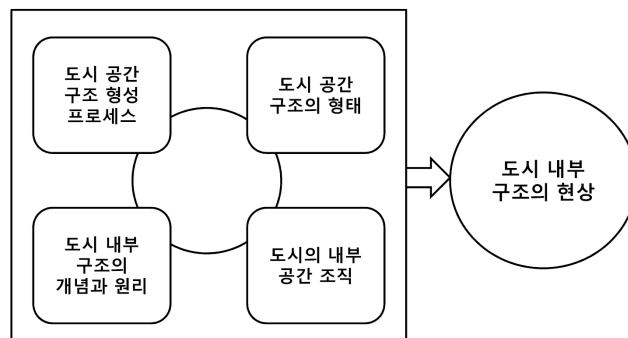


그림 7. 도시 내부 구조의 설명 틀과 4가지 구성 요소

한편 도시 내부의 공간 조직은 공간 형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또한 형성 프로세스에 따라 공간 조직의 특성을 가질 수 있다. 도시 내부 구조의 공간 조직은 기능적 측면 또는 기하학 차원을 가질 수 있으며, 구성 요소들의 유기적인 결합 및 상호작용 여부, 공간 집약도 등에 따라 다른 공간 조직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도시 내부의 특정 현상은 형태, 형성 프로세스, 공간 조직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개념과 원리에 따라 효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도시 내부 구조를 설명하는 개념과 원리는 종종 형성 프로세스와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구조를 형성하거나 그 공간 조직을 구성하는 토대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특정 공간 구조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공간 형태, 형성 프로세스, 공간 조직, 개념과 원리는 차별화되어 작용한다. 예를 들어, 도시 내부 구조의 고전 모델인 버제스의 동심원 모델은 CBD를 중심으로 하여 일련의 동심원 형태의 구역들로 구성된 공간 형태를 가진다. 또한 지대의 차이에 따른 서로 다른 토지이용의 공간 구조도 동심원의 형태를 가진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생태적 접근에 따라 인구의 교외화에 따른 차별적인 공간 구조의 분화에 초점을 가지는 반면, 후자의 경우 CBD로부터의 지대 차이에 따른 서로 다른 토지이용의 공간 점유와 공간 조직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공간 구조의 현상에 대한 4가지 요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이론과 개념보다는 형태적 측면만 강조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도시 내부 구조에 대한 주요 이론들이 심층적으로 이해되지 못하고 실제 현상에 대한 적용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은 도시 공간 구조의 프로세스(process)에 대한 것으로, 도시 공간의 형성이 시간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수반하여 왔으며, 다양한 프로세스의 결과물로서 현재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프로세스와 관련된 도시 구조 변화의 예로서 도시화 단계 모델(van den Berg and Klaassen, 1987)을 들 수 있다. 도시화, 교외화, 탈도시화, 재도시화의 4단계의 형성과정에서 도시 공간이 CBD를 중심으로 한 중심도시에서 교외 지역으로의 비중 변화와 반대로의 프로세스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에 대한 관심은 고전 도시 구조 이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III. 개념과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한 고전 도시 내부구조 이론의 재고찰

프로세스에 기반한 도시 구조 개념에 대한 설명을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호이트의 섹터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 모델

우선, 버제스의 동심원 모델(concentric zone model)은 단핵 도시 구조에서 도시 공간의 기능적 분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델로서 알려져 있다. 20세기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생태적 접근에 기반하여, 동심원 모델은 도시 내 이질적인 사회집단간의 상호작용 산물에 따라 도시 내부 구조의 분화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즉, 도시 내 이질적인 사회집단들이 각자의 공간을 점유하려는



그림 8. Burgess의 동심원 모델(왼쪽)과 입찰 지대를 이용한 동심원 모델(오른쪽)

출처 : Burgess, 1925; 신정엽 등, 2011.

노력이 전제되며, 도시 외부로부터 도심으로의 새로운 사회집단의 이주가 시작되면서 기존에 거주하던 사회집단과 갈등과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 공간 점유의 경쟁 결과 한 사회집단은 해당 공간을 점유하는 반면, 다른 사회집단은 도심에서 외부로 이주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공간에 새로운 사회집단이 이주하면서 기존의 집단과의 연쇄적인 갈등과 경쟁이 발생하며, 필연적으로 도시 공간이 외부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때 도심에서 외부로 이주하게 되는 사회집단은 상대적으로 주거계층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연쇄적인 공간 이동과 점유의 결과로 도심에서 서부터 원형의 링(ring) 지역들로 구성된 공간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들 지역은 도시 안에서부터 중심업무지구, 점이지대, 근로자 주거지대, 중상류층 주거지대, 통근권역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원형의 링 지역들은 각각 다른 사회집단에 의해 점유되며, 실제 현실세계에서는 지형 등의 차이에 따라 완벽한 원형의 형태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버제스의 동심원 모델은 다양한 이질적인 사회집단들 간의 경쟁과 갈등이 공간상에서 나타나며, 이들 간의 공간 점유 경쟁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 공간이 외부로 확장되는 교외화 프로세스가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즉, 제한된 공간에서 인구가 거주하다가 새로운 사회 집단이 도시로 들어오게 되면서 연쇄적인 이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도시 범위가 확대된다. 이때 경제적으로 나은 중산층이 교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교외화 프로세스는 특히 중산층 교외화 추이를 잘 설명해준다 (Burgess, 1925; Park, 1936).

이러한 동심원 모델에 의한 도시 내부 공간 구조의 설명은 시카고에 적용되어 설명되며, 이러한 설명 요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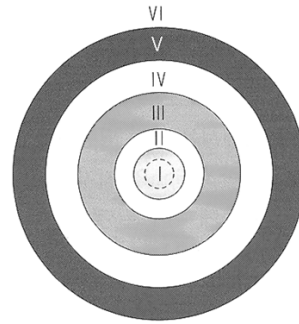


그림 10. Fisher(1930)의 수정된 동심원 모델

* I: 금융업무지구, II: 중심소매지구, III: 도매, 경공업지구, 저급주택지구, IV: 중공업지대, 노동자 주택지구, V: 주택지구, VI: 통근자 지구

출처 : 남영우, 2007.

그림 9와 같이 나타난다. 기본 개념과 원리로는 경쟁(competition), 지역(region), 이동(movement), 침입(invasion), 지배(dominance), 천이(succession)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도시 공간의 분화는 생태적 프로세스(ecological process), 집중(concentration), 분산(deconcentration), 중심화(centralization), 탈중심화(decentralization), 분리(segregation)로 나타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도시 공간은 연속적인 일련의 동심원 형태의 링들의 지역들로 구성되며, CBD를 중심으로 외부로 확대되는 형태를 가진다. 이러한 공간 형태들은 시공간 차원에서 도시의 주거 공간 구조가 조직화됨으로 보여준다. 또한 도시 내부 구조는 지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 있어서 기능적 분화가 나타나면서 공간을 형성하고 진화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버제스의 동심원 모델은 이후의 도시 내부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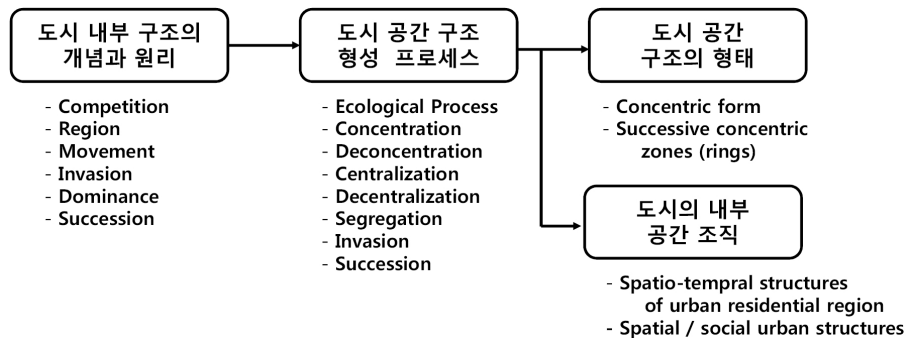


그림 9. Burgess의 동심원 모델의 설명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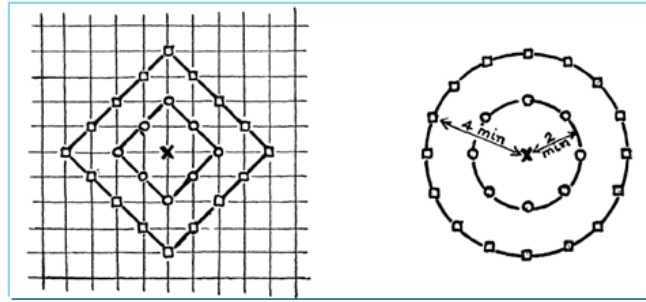


그림 11. Quinn(1940)의 수정된 동심원 모델

* 왼쪽은 도시내 도로에 따른 거리, 오른쪽은 시간 거리를 적용한 모델임.
출처 : Quin, 1940.

조에 대한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생태적 접근에 따른 사회집단의 공간적 상호작용에 따른 도시 공간의 분화를 설명하는데 유효하였다. 이러한 동심원 모델은 현실 세계의 설명을 위해 수정이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Fisher(1930)의 수정된 모델(그림 10)과 Quinn(1940)의 수정된 모델이다(그림 11). Fisher(1930) 모델은 버제의스 기준 모델에서 두 가지가 추가되었는데, 첫 번째는 기존의 CBD 지역을 금융업무 지구와 중심소매 지구로 세분화하였고, 두 번째는 버제스 모델에는 없던 중공업 지대를 추가하여 IV 지구에 포함하였다.

Quinn(1940)은 버제스 동심원 모델의 비현실적인 요소들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수정을 시도하였는데, 우선 도시 내에서는 단순 기하학적 거리가 아닌 도로 상의 거리를 통해 지역을 설정하고자 하였으며(그림 11의 왼쪽), 또한 실제 거리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이동시 발생하는 시간 거리(time distance)의 개념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2. 호이트(Hoyt)의 섹터 모델

호이트(Hoyt)의 섹터 모델은 경제 지대(economic rent)를 기반으로 하여 도시 공간 구조를 CBD를 중심으로 도시 외부로 확장되는 다양한 섹터(sector)들의 구성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²⁾.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 서로 다양한 지대를 가지는 섹터들이 형성되는데, 이들 섹터의 점유는 상류층, 중산층, 근로자층의 형태로 거주지 분리(residential segregation)가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제시된 호이트의 섹터 모델의 형태적 측면만 보아서는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도시 공간이 비정형

의 별형 모양(star shape)의 공간 구조와 유사하게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호이트의 섹터 이론도 철저히 상류층의 섹터가 도시 내부에서 가장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에 입지하고, 그 주변에 중산층 섹터가 위치하며, 근로자층 섹터는 공장 지대 섹터 주변에 입지하는 공간 분리 프로세스를 반영한다.

그림 12에서 나타나는 계층적 주거지 선정 방식은 도시내 공간의 거주지 분리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즉, 소매·공업 지역(그림 12의 2번 지역)은 도시 내에서 가장 선호되지 않은 지역이다. 이때 상류층은 이들 선호되지 않은 지역에서 가장 거리가 멀면서, 환경적으로 쾌적한 지역을 선호하여 입지하게 되며 이때 지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된다(그림 12의 5번 지역). 한편 중산층은 상류층 주거 지역보다는 지가가 높지는 않지만, 그 다음으로 도시 내에서 주거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게 되며, 이들 지역은 주로 상류층 주거 지역 옆에 입지하는 지역의 경우가 많다(그림 12의 4번 지역). 한편 근로자는 도시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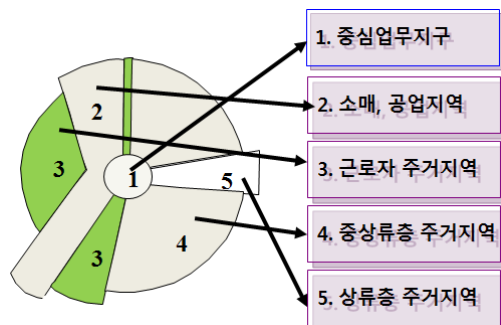


그림 12. Hoyt의 섹터 모델

출처 : Hoyt, 1939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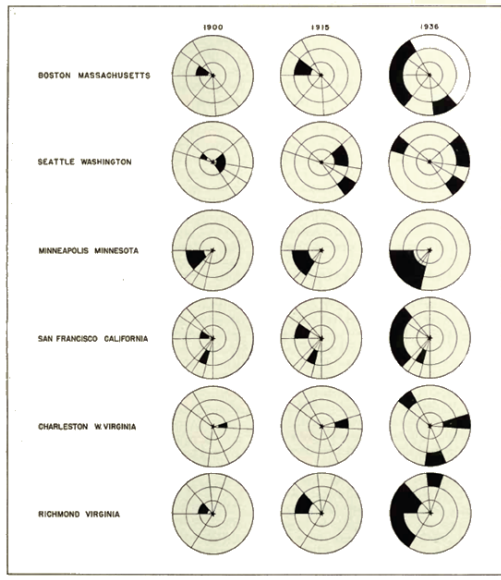


그림 13. 미국 도시에서의 상류층의 주거 지역의 교외화
출처 : Hoyt, 1939.

주거 선정에 있어서 많은 선택을 가지지 못하며, 상류층과 중산층이 점유한 공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역은 소매·공업 지역에 가까운 지역이 되는 경우가 많다(그림 12의 3번 지역). 이처럼 지대에 따라 도시내 주거 공간이 섹터 형태로 분절화되며, 분절화된 섹터들은 각기 다른 경제 계층에 따라 주거 지역의

선정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거주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섹터 모델의 또 다른 특성의 하나는 주거 섹터의 변화에 대한 것이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교통의 발달 등에 따라 도시 영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도시 영역이 확대되면서 섹터들이 외부로 성장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다양한 경제적 지대를 가진 섹터들은 각각 다른 변화를 겪게 되는데, 특히, 중산층의 주거 섹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규모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교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실제 도시 내부 구조의 연구 결과를 통해 쉽게 확인된다(그림 13). 즉, 상류층의 교외화는 해당 섹터의 발달과 외부로의 확장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섹터들의 확대와 교외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층별 연쇄적 이동 과정을 통해 설명된다. 즉 그림 14에서 보는 것처럼, 즉, 시간 순으로 보면 상류층 섹터의 교외화가 나타나며 이를 시작으로 중산층과 근로자층의 주거 지역이 단계적으로 교외화되는 필터링 프로세스(filtering process)가 나타나게 된다(Hoyt, 1939; Johnston, 1970).

따라서 동심원 모델이나 섹터 모델에서 제시한 주요 개념들은 교외화, 거주지 분리의 개념과 원리를 기반으로 하며, 이를 토대로 한 도시구조 형성 프로세스가 설명되지 않은 채 형태적인 공간만을 강조하는 경향은 모델 전체의 설명 틀에서 일부 만을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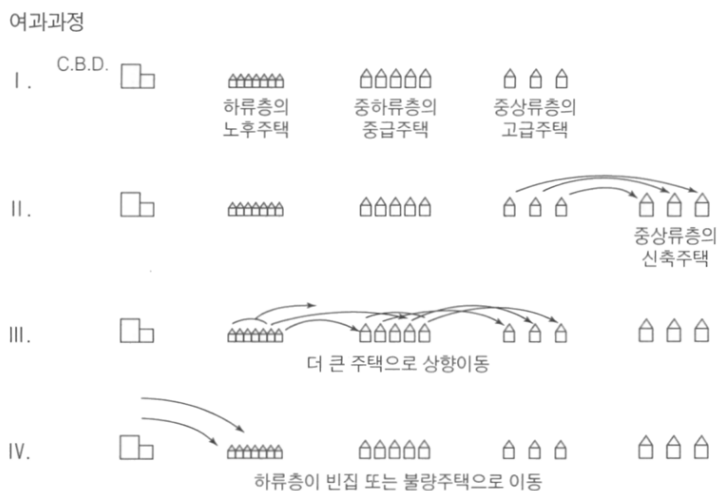


그림 14. 시간 변화에 따른 주거의 Filtering process

출처 : 남영우,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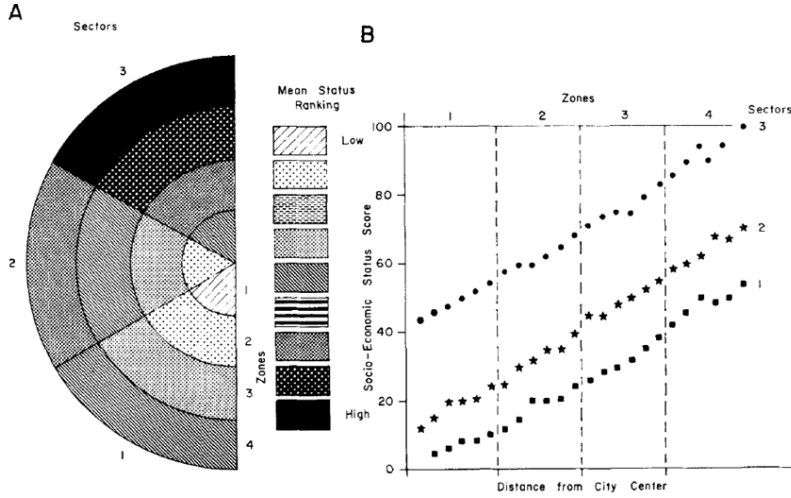


그림 15. 도시내 주거 구조의 공간 패턴

출처 : Johnston, 1970:362.

있다. 이러한 주요한 개념과 원리, 프로세스는 현대 도시 내부 구조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1930, 1940년대에 발표된 이러한 고전 이론은 여전히 많은 후속 연구를 통해 현대 도시 구조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Quinn, 1940; Smith, 1962; Kearsley, 1983).

호이트에 의해 도시내의 주거지 분리는 이후의 많은 후속 연구를 통해 발전되었다. 예를 들어 Johnston(1942)는 도시내 주거 구조의 공간 패턴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각기 다른 섹터들을 점유하는 도시 내부 구조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때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섹터들이 분포하며 또한 섹터들마다 공간적으로 상대적으로 유사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는 공간 패턴을 보이고 있다(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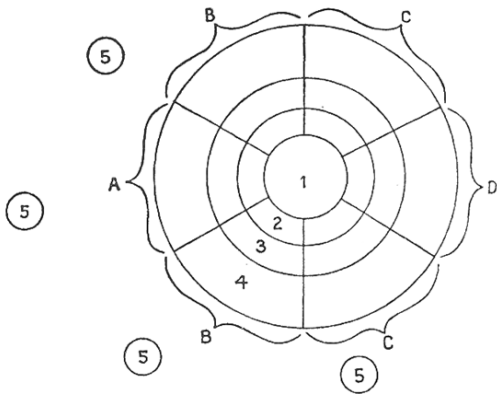


그림 16. Mann(1965)의 모델

* 1: 도시 중심, 2: 점지 지역, 3: 섹터 C, D에서의 작은 테라스 주택 지역, 섹터 B에서의 커다란 Bye-Law 주택, 섹터 A에서의 커다란 오래된 주택, 4: 1918년 이후의 주거 지역, 1945년 이후의 개발 지역, 5: 통근 거리 빌리지

A: 중산층 섹터, B: 서민층 섹터, C: 근로자층 섹터, D: 제조업 및 빈민근로자층 지역

출처 : Mann, 1965:96.

또한 Mann(1965)의 모델에서도 호이트의 섹터 모델을 토대로 한 주거지 분리가 이루어진 공간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림 16에서 보는 것처럼, 주택 유형에 따라 섹터가 분류가 이루어지면서, 또한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섹터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한편 방향성의 측면에서 중산층, 서민층, 근로자층 등으로 구성되는 섹터들이 존재하는데, 이때에도 중산층과 서민층의 섹터들은 공간적으로 인접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공간 내에서 가장 거리가 떨어져 위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호이트의 섹터 모델도 실제 세계의 도시 내부 구조에 대해 효과적인 설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모델의 기본 개념과 원리는 경제 지대(economic rent)에 따라 다양한 섹터들이 형성되며, 이들 섹터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이때 도시 성장, 교외화, 거주 이동성의 개념 등이 사용된다. 경제적으로 다양한 섹터들은 각기 공간 점유의 선호와 경쟁에 따라 자연스럽게 거주지 분리가 나타나게 되며, 이때 상류층 섹터는 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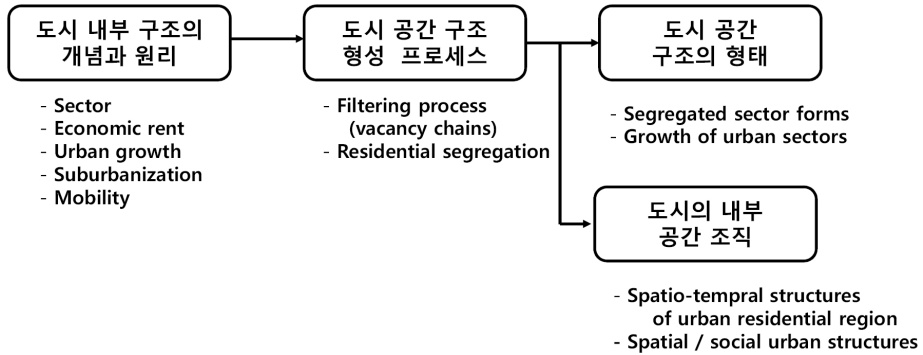


그림 17. 호이트(Hoyt)의 섹터 모델의 설명 요소

지층 섹터와 공간적으로 인접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상류층 섹터는 교외 지역으로 확대되고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필터링 프로세스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형성 프로세스를 통해 도시 공간 구조를 도심에서 외부로 켜기 형태의 섹터들로 구성된 도시 공간 구조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섹터들로 구성된 공간 구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 패턴의 변화가 나타나는 동시에, 공간 측면외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도시 공간 조직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17).

이처럼 도시 내부 공간 구조를 설명하는 요소, 즉 개념과 원리, 형성 프로세스, 공간 구조의 형태, 공간 조직은 실제의 도시 내부 현상을 설명하는데 필요하며, 단순히

형태적 측면만 살펴보는 것 이상의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이러한 4가지 요소에 의한 고전 도시 구조 모델의 재고찰을 통해 버제스와 호이트의 고전 모델이 더 이상 구시대의 산물로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도시 내부 구조를 설명하는데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18).

특히, 현대 대도시에서의 거주 공간의 세분화를 통해, 주거 공간의 분리, 중산층의 교외화, 주거 공간의 경쟁과 점유를 통한 주거 공간의 변화 등은 매우 효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형태적 측면에서의 고전 모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극복하고, 4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한 올바른 성찰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재확인할 수 있게 되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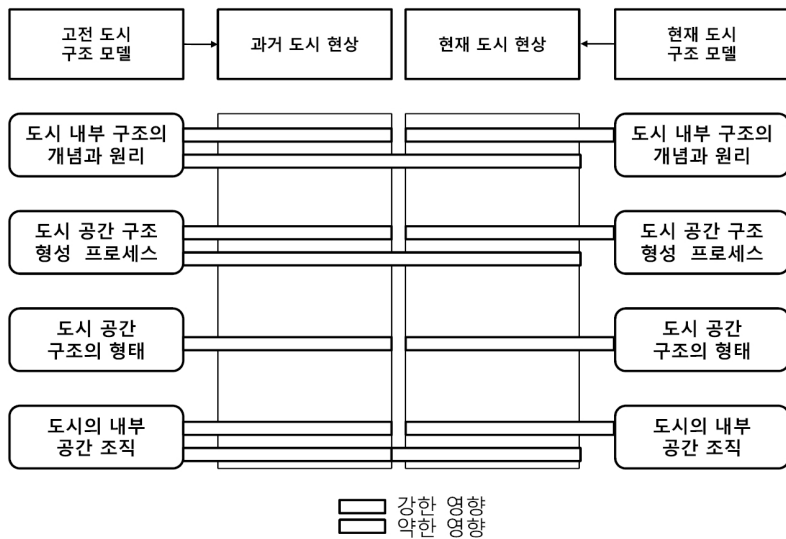


그림 18. 도시 공간 구조를 설명하는 4요소에 근거한 고전 도시구조 모델의 재고찰

IV. 결론

본 연구는 기존에 형태적 측면만 강조되었던 도시 내부 공간 구조에 대한 설명을 개념과 원리, 형성 프로세스, 공간 조직, 형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고전 내부구조 모델에 적용하여 재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전 모델인 버제스의 동심원 모델과 호이트의 섹터 모델에 적용하여 재고찰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론과 모델의 일반화된 측면은 개별 실제 세계 현상들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측면을 토대로 구축된 것이며, 이를 토대로 전형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일반화된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개별적인 현상에서 독특하고 개별적인 특성 이상을 유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일반화되고 핵심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 내부 구조에 대한 고전 모델은 그 핵심 요소와 개념들이 왜곡되고 간과된 상태로 논의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잘못된 접근으로 인해 현대 도시구조에 대한 물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시 구조의 형태적 측면에 대한 집착은 그 형태적인 직관적인 이해 이외의 본질적인 접근을 불가능하게 한다. 즉, 핵심 개념과 프로세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도시 구조 모델에 대한 현실 세계 적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註

1) 이러한 도시 공간 구조의 개념화에 추가하여, 도시 영역(urban boundary) 가까이 위치한 지역을 도시 경계 지역(urban fringe region)이라 한다. 이때 도시 경계 내부 가까이 위치한 지역을 도시 경계 지역(urban fringe region), 그리고 경계 밖의 가까이 위치한 지역을 농촌 경계 지역(rural fringe region)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렇게 세분화하여 실세계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모호하고 유용성이 떨어지므로, 대부분의 도시 내부 구조와 관련한 교재와 논문에서는 CBD를 중심으로 한 중심 도시(central city), 그리고 이를 둘러싼 도시 지역인 교외 지역(suburban region)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Hartshorn, 1991; Mayer and Beegle, 1947; Pryer, 1968).

2) 일부 교재에서 Sector model을 ‘선형 모델’이라는 용어로 한 것은, 교통수단과 관련하여 형태학적인 선형(linear)적 공간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되어 보이지만, 실제 프로세스와 원리는 이질적인 공간들의 구성과 이들의 교외화를 통한 거주지 분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섹터 모델’의 용어가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남영우, 2007, 「도시공간구조론」, 법문사.
 박병익·장준현·김진수·이정식·곽진영·양희경·엄정훈·심은희, 2012, 「고등학교 한국지리」, 서울: (주)천재교육.
 신정엽·이건학·김감영·전용완·이상일·조대현·최은영·김현미·홍일영, 2011, 「도시의 탐색」, 시그마프레스.
 신정엽·김진영, 2012, 도시 스프롤에 대한 논의 재조명과 공간분석 방법론에 토대한 도시 스프롤 측정연구, 서울법학, 19(3), 317-354.
 신정엽, 2008, 도시내부구조의 생태적 접근방법과 도시지역선정연구의 재조명, 지리교육논집, 51, 27-41.
 이순용·김훈기·김용진·서원명·최부현·최유진·이태규, 2003, 「고등학교 한국지리」, 파주: 법문사.
 이승호·정환영·강대균·김현재·이재은, 2003, 「고등학교 한국지리」, 서울: (주)두산.
 이우평·유성중·우연섭·조성호·김지현·유진상·백승진, 2012, 「고등학교 한국지리」, 서울: (주)비상교육.
 조성호·박선희·박철웅·옥한석·이경택·채기병·최원길, 2008, 「고등학교 한국지리」, 제6판, 서울: (주)대한교과서.
 Anas, A., Arnott, R. and Small, K., 1998, Urban spatial structur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6, 1426-1464.
 Berry, B., 2001, The Chicago School in retrospect and prospect, *Urban Geography*, 22(6), 559-561.
 Bourne, Larry (eds.), 1982, *Internal Structure of the C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Burgess, E.W., 1925, The Growth of the City, in R.E. Park, E. Burgess & R. McKenzie (eds.) *The Ci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47-62.
 Colby, Charles, 1933, Centrifugal and centripetal forces

- in urban geogra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23, 1-20.
- Garreau, Joel, 1996, *Edge Cities: Life on the New Frontier*, New York: Doubleday.
- Gillham, O., 2002, *The Limitless City: A Primer on the Urban Sprawl Debate*, Washington, D.C.:Island Press.
- Hartshorn, T., 1991, *Interpreting the City*, 2nd edition, New York: Wiley.
- Hoyt, H., 1939, *The Structure and Growth of Residential Neighborhoods in American Cities*, Washington, D.C.: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 Johnston, R.J., 1970, On spatial patterns in the residential structure of cities, *Canadian Geographer*, 14(4), 361-367.
- Kearsley, G.W., 1983, Teaching urban geography: the Burgess model, *New Zealand Journal of Geography*, 75(1) 10-13.
- Knox, Paul and McCarthy, Linda, 2005, *Urbanization: An Introduction to Urban Geography*, 2nd edition,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Mann, P., 1965, *An Approach to Urban Sociology*, London: Routledge.
- Mayers, R. and Beegle, A., 1947, Delineation and analysis of the rural-urban fringe, *Human Organization*, 6(2), 14-22.
- Mumford, L., 1961, *The City in History*,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 Pacione, M., 2009, *Urban Geography: A Global Perspective*, 3rd edition, London: Routledge.
- Park, R., 1936, Succession: an ecological concep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2), 173-179.
- Pryor, R.J., 1968, Defining the rural-urban fringe, *Social Forces*, 47, 202-215.
- Quinn, J., 1939, The Nature of Human Ecology-Reexamination and redefinition, *Social Forces*, 18(2), 161-168.
- Quinn, J.A., 1940, The Burgess zonal hypothesis and Its critic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 210-18.
- Smith, P.J., 1962, Calgary: a study in urban pattern, *Economic Geography*, 38(4), 315-329.
- Theobal, D., 2001, Land-use dynamics beyond the American urban fringe, *Geographical Review*, 91(3), 544-564.
- van den Berg, L. and Klaassen, L., 1987, The contagiousness of urban decline, in van den Berg, L., Burns, L. and Klaassen, L.(eds.) *Spatial Cycles*, Vermont: Gower, 84-99.
- 교신 : 신정엽, 151-748,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geoshin@snu.ac.kr)
- Correspondence : Jungyeop Shin, 151-748, 1 Gwanak-ro, Gwanak-gu, Seoul,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mail: geoshin@snu.ac.kr)

투 고 일: 2012년 10월 10일
 심사완료일: 2012년 10월 29일
 투고확정일: 2012년 10월 30일